

한국경제사를 다시 써야 할 이유

백 우 진
이코노미스트 편집장

I. 전 문

모든 이론은 공허해질 위험이 있다. 이론은 개별 사례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한 틀이기 때문이다. 추상화하는 과정은 구체적인 사실을 버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과 지혜는 개별적인 사례가 들려준다. 사례가 없다면 우리는 역사서를 읽지 않을 것이다.

한국경제사가 바로 이런 어리석음에 빠졌다. 지금까지 나온 한국경제사엔 우리 경제의 성장 과정이 뭉그러져 서술됐다. 한국 경제를 이루는 주요 산업이 어떤 조건에서 위험한 첫 발을 내디뎠고 어떤 난관을 극복한 끝에 자리잡게 됐는지는 분석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기업가의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한국경제사를 다시 써야 할 이유를 살펴본다.

II. 본 문

사마천은 역사를 본기(本紀), 세가(世家), 열전(列傳) 등으로 나눠 서술했다. 본기는 왕의 정치와 행적을 중심으로 왕조의 변천을 다룬 부분이다. 세가에서는 제후를, 열전에선 그밖의 인물을 소개했다. 사마천은 공자는 제후가 아닌데도 세가에 포함했다.

본기 · 세가 · 열전 등으로 역사를 구성하는 방식은 이후 ‘기전체’라고 불리며 동양 역사 서술의 한 가지 전형으로 자리잡게 된다. 기전체는 본기의 ‘기’와 열전의 ‘전’에서 따온 말이다.

권력을 가진 인물을 중심에 둔 역사 서술 방식은 서양이라고 해서 다를 수 없었다. 자본주의가 형성되기 전 사회는 모든 위계가 권력에서 비롯됐다. 부는 권력의 크기에 따라 배분됐다. 지명도의 순위 또한 권력의 랭킹에 비례했다. 유럽에서 교황의 권력이 왕권을 능가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교권 또한 권력의 일종이었다.

이는 역사적 실체를 반영한 서술 · 분석 방법이었다. 왕조 시대 보통사람은 영향력이 클 수 없었다. 그 권력을 제대로 수행했든 못했든 중요한 일은 권력의 핵심층에서 결정됐다. 역사책에 이름을 남긴 장삼이사(張三李四)는 많지 않았다.

평민 가운데 역사에 기록된 이는 다음 두 부류, 즉 권력에 가까이 접근하거나 많은 사람을 규합해 권력에 대들거나 하는 외에는 드물었다. 민란을 주도한 이가 기존 왕조에 의해 제압되면 민란 주동자로 기록됐다. 그러나 기존 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왕조를 연 이는 역사의 중심 인물로 부상했다.

III. 인물을 뒤로 빼는 역사 저술

인물 중심의 역사 서술 방식은 언젠가부터 소수파가 됐다. 큰 인물 위주로 역사를 쓰는 데 반대한 역사학자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로 E.H. 카를 들 수 있다.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인물 숭상의 역사는 끝났다”며 그 시대적 배경으로 ‘대중 민주주의의 부상과 경제적 생산 · 조직이 개인에서 집단적인 형태로 교체되는 것’을 들었다.

카는 ‘사회와 개인’ 장(章)에서 역사의 전개에서 사회를 중시할지 개인을 중시할지는 ‘닭이나 달걀이냐’와 같은 난제라고 운을 뗀 뒤 인물 중심의 역사 기록을 비판했다.

역사의 흐름을 인물로 설명하는 서술이 위험한 근거로 그는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어떤 위대한 인물도 그 사회 밖에서 그 사회로 뛰어들어 모든 걸 만들어낼 수는 없다. 위대한 인물일수록 사회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사람이 항상 자기 행동의 동기를 충분히 의식하고 행동하지는 않는다. 역사적 인물의 행위는 그 자신이 아니라 그의 배후에 있는 집단이나 계급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종종 그 의도와 달라진다.

카는 자신이 위인의 위대함을 깎아내리고자 함은 아니라면서도 역사상 위인의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잡는다. 그는 위인을 두 부류로 나눴다. 하나는 “기존에 작용하는 힘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힘을 만들어낸 힘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분류했다.

그는 나폴레옹과 비스마르크를 기존에 존재하는 힘의 등에 올라탄 인물로 평가했다. 반면 레닌은 스스로 힘을 형성해 위대함의 반열에 올라선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지닌 위인으로 높이 평가했다.

카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는 탄탄하지 않다. 예를 들어 그는 비스마르크는 18세기 독일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독일을 통일한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를 과소 평가하려면 ‘비스마르크가 아니었더라도 독일은 통일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까지는 나가지 않는다.

개인이 아니라 군중이 역사를 바꾼 사례로 카는 프랑스 혁명을 든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에서처럼 전체 · 독재 정권을 전복한 군중의 도도한 힘을 높이 평가한다고 해서, 다른 사안에서 중심 인물의 역할을 그에 합당하게 평가하는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키는 개인 중심 역사 서술이 빠질 오류만 지적하지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개인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사례는 잠깐 언급하고 만다.

결론은 역사에서 개별 인물을 얼마나 크게 다룰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집트 혁명 같은 사건에서는 민중의 비중을 크게 다뤄야 마땅하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싱가포르가 45년 뒤인 지난해 경제 규모에서 말레이시아를 추월한 성과를 리완유 전 총리를 빼놓고 분석할 수는 없다.

IV. 경제를 누가 성장하게 하는가

이제 역사 서술의 분야를 경제로 좁혀보자. 자본주의 이전 경제는 큰 생산력의 발전 없이 현상을 유지했다. 그런 제로섬(zero sum) 상태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 더 많은 몫을 받느냐에 집중됐다.

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권력이었다. 따라서 자본주의 이전 경제사는 일반 역사로부터 따로 떼어내 서술할 부분이 많지 않았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이후 경제의 주인공은 기업가가 됐다. 이를 경제학자 조셉 슈페터의 논리로 살펴보자. 슈페터는 자본주의는 질적인 변화를 통해 비약하는 체제라고 파악했다. 달리 표현하면 자본주의는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본질로 하는 체제다. 자본주의의 본산지 유럽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아메리카로 시장을 확장하고 기술을 혁신하면서 경제를 놀라운 속도로 키웠다.

새로운 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개척한 지리적 발견이 권력 교체보다 더 중요해졌다. 이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면직물을 생산하기 시작한 기업이 정치적인 변화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줬다.

슈페터는 지리적 발견을 비롯한 혁신을 자본주의의 근본 발전 동인으로 인식했고, 혁신을 신상품, 신기술, 신공급원, 신산업조직 등으로 나눴다.

이어 그는 이런 혁신을 바로 기업가가 이룬다고 봤다. 그는 “기업가는 신상품을 생산하거나, 새로운 기술 가능성을 이용해 구(舊)상품을 생산하거나, 원재료의 새 공급원이나 생산품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거나, 또는 산업을 재조직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철도 건설, 전력 생산, 자동차 제조, 식민지 개척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슈페터는 기업가를 자본주의의 지도자로 여겼다. 『경제발전의 이론』에서 그는 기업가 기능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관행의 영역 밖으로 나오는 것은 항상 어려움을 동반하고 새로운 요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요인을 내포하는- 이러한 요인을 그 본질로 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지도자 활동이다.”

그는 지도자의 특징으로 “사물을 남과 달리 보고, 불확실성과 저항을 반대 이유로 느끼지 않으며 혼자서 무리보다 앞서 나아가며, 사람을 따르게 하는 힘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V. 한국경제사, 이론의 공허함에 빠지다

여기서 의문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경제사에서는 기업가가 주인공이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한 나라의 경제를 기업가가 주도하는 건 아니다. 집권자와 전문 관료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은 정부가 방향을 잘 잡아 수출을 앞세운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해 기업을 과격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바탕이 있었기에, 또 기업가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실무진과 근로자가 있었기에 경제 기적을 이뤘다.

우리는 역사에 이들의 몫을 충분히 반영하는 동시에 기업가의 기여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 다른 사업가가 현 상태에 머무는 동안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영역으로 치고 나가 자리를 잡은 정주영 이병철 같은 슈페터적인 기업가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한국 경제가 자동차, 반도체, 전자, 조선, 화학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오르지 못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쓴 ‘한국경제사’ ‘한국경제론’ 대부분에는 우리 경제의 성과를 일군 주역들이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전문 관료와 기업가의 이름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한 경제학자는 한국 경제의 성장에는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증가와 기술 진보, 이 두 가지 다 기여했으며, 생산요소가 기술 진보보다 기여도가 조금 더 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발간된 『한국경제 60년사』는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저축성향, 근로자의 부지런함, 기업가의 개척정신, 정부의 리더십과 꾸준한 경제·사회개발 투자를 한국 경제의 성공 요인으로 들었다.

지금까지 나온 한국경제사 책 대다수는 ‘왜 역사를 써야 하는가’ 하는 소명 의식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건 배우고 경계하기 위함이다. 역사를 쓰는, 써야 하는 이유는 배우고 경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업가를 비롯해 한국 경제를 지금과 같은 위치에 올린 인물들을 한국경제사에 남겨야 한다. 이들이 어떤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떤 창의적인 의사결정과 추진력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는지 분석하고 기록해야 한다. 버리고 가기엔 한국 경제의 인물들이 남긴 지적 자산이 너무 아깝다. ☹